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5.(일) 13:00 (2026. 11. 16.(월) 조간)

옷 한 벌에 담은 따뜻한 마음, 이주노동자와 함께 나눕니다

- 11월 15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겨울옷·작업복 나눔 행사'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15일(일), 울산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함께 **'이주노동자 겨울옷·작업복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이창곤), 전태일재단(이사장 송경용)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4개 노동권익재단이 지난 4월 체결한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으로 마련됐다. 그간 울산, 광주, 경북 예천, 충남 아산, 경기 안산에서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전달하고, 포크 나눔 등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해 온 데 이어, **추운 겨울철**을 앞두고 낯선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역 기업, 시민단체 등이 **겨울옷과 방한용품을 기부**하며 **이주노동자에게 온기를 나누려는 마음**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노사단체 및 주요 기업 관계자,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겨울옷과 작업복을 직접 전달**하고, 기부된 방한용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옷을 직접 고르며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눴다.

행사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산업현장을 함께 지키고,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다르지 않고,**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도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을 당부하셨다"라면서 "낯선 땅에서 맞이하는 겨울이 때로는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통령님을 비롯해** 오늘 **전국 곳곳에서 보내온 따뜻한 마음**이 이주노동자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이겨낼 온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이주노동자 겨울옷·작업복 나눔행사 in 울산」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4-202-7157)
		담당자	사무관	김진아 (044-202-7152)
			주무관	박성진 (044-202-715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붙임 1 「이주노동자 겨울옷 · 작업복 나눔 행사 in 울산」 개요

□ **(주최)** 고용노동부, 4개 노동권익재단*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 **(일시)** **'26. 11. 15.(일), 13:00～16:00** (본행사: 13:00~13:40)

□ **(장소)**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울산 북구 산업로 1020, 3층)**

□ **(참석)** 고용노동부 장관, 울산시장, 북구청장, 노동권익재단 이사장, 윤종오 의원, 차규근 의원, 지역 노사단체 관계자, 이주노동자 등

□ **(주요내용)** 이주노동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옷 및 작업복 기부 및 나눔 행사 진행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3:00~13:10 ('10)	• 여는 마당	이주노동자와 함께 여는 난타
13:10~13:11 ('1)	• 개 회	사회자
13:11~13:12 ('1)	• 묵 념	
13:12~13:17 ('5)	• 개회사	• 울산노동약자지원사업단 '온' 대표 •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13:17~13:27 ('10)	• 내빈인사	• 주요 내빈
13:27~13:36 ('9)	• 축 사	• 고용노동부 장관 • 울산시장 • 이주노동자
13:36~13:40 ('4)	• 피켓 퍼포먼스	
13:40	• 폐 회	
13:40~16:00 ('140)	• 작업복 나눔	이주노동자 전체

붙임 2 **인사말씀** * 실제 현장에서의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여러분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주노동자 겨울옷·작업복 나눔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윤종오 의원님, 차규근 의원님,

울산시장님, 북구청장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전태일재단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주말에 함께해주신

이주노동자분들께

반가운 인사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4개 노동권익재단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이주노동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나누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동료로 존중하자는
약속을 확산해 왔습니다.

오늘 행사는 그 약속을 일터의 실천을 넘어
일상의 나눔으로 확산하는 자리입니다.

이주노동자 여러분은 우리의 산업현장을 함께 지키고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입니다.

오늘 준비한 겨울옷과 작업복에는
추운 계절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맞이하는 겨울이
때로는 더 춥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반기고 아끼는 동료와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따뜻한 마음이
오늘 이곳에서 반가운 만남과 웃음으로 이어지고,
다가오는 겨울을 이겨낼 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 여러분이
일터와 일상에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올겨울 모두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